

우도의 해녀 이야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서 만나다

9월 마지막 주 개봉영화, '물숨' · '다가오는 것들' · '할머니의 먼 집' 등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9월 넷째주 상영작으로 배우 조재현의 감독 데뷔작 <나홀로 휴가>와 배우 박근형의 액션 느와르 도전작 <그랜드 퍼더>를 비롯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물숨>, <다가오는 것들>, <할머니의 먼 집>을 상영한다.

오는 28일 상영되는 영화 <나홀로 휴가>는 10년을 하투처럼 옛사랑을 땀땀한 한 남자의 지긋지긋한 사랑 혹은 지긋지긋한 집착에 관한 작품으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제18회 우디네 극동영화제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배우 박혁권이 '강제' 역을 맡았으며,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드는 배우 조재현이 각본, 감독한 첫 장편 영화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랜드 퍼더>는 젊은 시절 베트남 참전용사라는 영광을 뒤로 한 채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던 노장이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위해 아

들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 진실에 맞서는 작품이다. 배우 박근형의 액션 느와르 도전 작품으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코리안판타스틱 경쟁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어 29일에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3편을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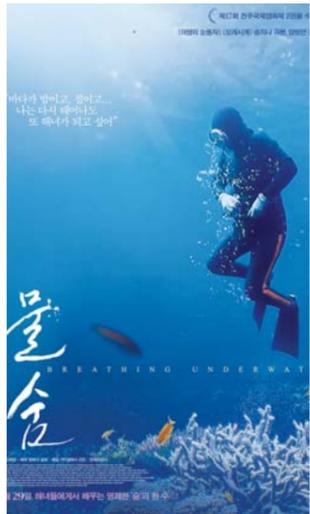
한국경쟁 특별언급상과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을 수상한 <물숨>은 해녀 중에서도 가장 강인하기로 소문난 우도의 해녀들을 7년간의 밀착취재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기존의 다큐멘터리들이 담아낸 해녀들의 일상에서 더 나아가 해녀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앓아가는 '물숨'에 대한 욕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 출신의 고희영 감독, '모래시계'의 송지나 작가의 원고, 제주 출신의 아티스트 양방언의 음악, 문화재 항공촬영으로 유명한 김치연 교수 외 촬영 분야의 대가들이 참여한 작품이다.

또 월드 시네마시네이프-스펙트럼 부문 상영작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

심을 받았던 영화 <다가오는 것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50대 여성 나탈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의 순간들과 그로인해 흔들리는 마음의 파동을 그린 작품이다. 프랑스 신예 감독 미아 한센 러브와 세계적 배우 이자벨 위페르의 만남과 제6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다.

전주프로젝트마켓(제8회)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 부문 KB국민카드상, 관객상 수상작 <할머니의 먼 집>은 어린 시절을 함께 한 할머니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들은 손녀가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머물며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삶과 죽음, 가족을 향한 사랑 등 보편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화두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iff.or.kr> 문의 063)231-3377.



우도의 해녀들을 7년간의 밀착취재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물숨'

/정해은 기자

고창의 한옥상설공연 '도리화 귀경가세'

'허튼 덧배기춤'으로 큰 호응 속 마무리

고창의 한옥상설공연 '도리화 귀경가세(연출 남기성)'가 지난 24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특별 출연자로 연출자 남기성 씨가 특별출연해 허튼 덧배기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서울에서 공연을 찾은 천모씨는 "고창에 이런 좋은 공연이 있는 줄 몰랐는데 고창읍성의 자연과 한옥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정말 멋진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도리화 귀경가세'의 열혈관객 고창군 대신면에 사는 최길씨는 "토요일 저녁이면 '도리화 귀경가세' 찾는 재미가 컸는데 끝나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고창의 이야기로 고창 전통 연희자들이 이런 훌륭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도리화 귀경가세' 공연을 제작한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첫 공연부터 지난 9월 24일 공연까지 4,899명의 관객이 다녀갔으며, 98%의 평균 객석 점유율로 매 회 흥행 속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과 관계자에게 진심어린 감사사를 전했다.

고창군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고창 출신 동리 신재효와 진채선의 이야기가 담긴 '도리화 귀경가세'를 통해 고창의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고창읍성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었다"며, "마지막 공연까지 매 회 찾아주시는 고창 주민들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혼불학생문학상 대상에 배유진 학생 선정

제6회 혼불학생문학상에 배유진(경기도 화성 반송고 3학년) 학생의 <콩나물국밥>이 선정됐다.

'콩나물이라면 지긋지긋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콩나물 냄비가 더 이상 비리지 않았다.'로 끝나는 이 작품은 콩나물국밥집에서 일하는 엄마와 똥똥한 외모로 외톨이가 돼 학교를 그만둔 언니, 그 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소재로 가족과의 화합과 성장을 그려냈다.

수상자인 배유진 학생은 "글을 쓸 때마다 잃어버린 일기장을 뒤적이는 막막함에서 시작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도 여러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가족이나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갖가지 음식들이 사와 어떻게 잘 비비지는 지를 먼저 살폈다."면서 "전라북도의 풍토와 음식 재료가 생생히 숨을 쉬는 글들을 보면서 최명희 선생의 글에서 보이는 생활문화사의 재현이 우리 청소년들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 음식'을 주제로 한 올해 혼불학생문학상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필·소설·희곡 등 다양한 형식의 산문작품을 모집했다. 그 결과 87개교 803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해 '혼불' 최명희 작가의 문학혼을 기렸다.

배유진 학생의 <콩나물국밥>과 함께 김수지(김제 만경여고 3년) 학생의 <박대



경기도 화성 반송고 3학년 배유진 학생

목의 그리움>과 박성원(전주 상산고 3년) 학생의 <혈액 속에 알알이>가 차상을, 강우림(전남 목포덕영고 2년) 학생의 <해선생을 위하여>, 문수인(경북 구미 금오여고 2년) 학생의 <사랑과 미각을 알고 싶다면>, 채민진(전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 1년) 학생의 <전주에서, 어느 소소한 해프닝>가 차하를 수상하는 등 모두 36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10월 8일 오후 2시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리며, 이날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백 영화평론가의 문화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284-0570.

/정해은 기자

'모여라! 비빔밥' 대회 출전 참가팀 모집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3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16전주비빔밥축제 '모여라! 비빔밥' 대회에 출전할 참가팀을 모집한다.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행사인 모여라! 비빔밥은 친구, 가족, 동호회, 기업, 단체가 모여 팀 만의 독특하고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창작 경연대회이다. 대회 시상 후에는 관람객들과 함께 비빔밥을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격은 1팀 3인 이상 이번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10월 7일까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bibimbapfest.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webmaster@pncc.or.kr)로 보내면 된다.

대회 입상팀 선정은 형태미 25%, 창의성 25%, 전통성 25%, 참가자 구성 및 위생 25%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은고를 뜻심대상인 종합대상 한 팀에게는 상금 50만원 상당의 은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대동상·풍류상·올곧음상·창신상 등 각 부문별 금상1팀(30만원), 은상2팀(20만원), 동상3팀(10만원)에게도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문의는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 기획팀 063-231-8969, 063-277-2515.

/정해은 기자

광주비엔날레, 28일 야간개장 · 특별 이벤트

2016광주비엔날레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야간개장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6광주비엔날레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야간개장을 하고 재즈 공연 등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야간개장은 기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로 연장 운영된다.

이날 오후 6시 이후 입장권을 구입하는 관람객은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야간에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공연도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가을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재즈 공연이 오후 7시30분부터 진행된다.

5인조 재즈 그룹 NS재즈가 열정, 위로, 행복의 3가지 테마로 재즈 퍼포먼스 '당신을 위한 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관에 자리잡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제시하면 음료와 음식, 특별 할인한다.

/뉴시스

미술 가야금병창 및 기악 경연대회

내달 1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공예문화예술진흥회, 제7회 한국공예문화예술진흥회 미술 가야금병창 및 기악 전국경연대회'에 함께 할 참가자를 10월 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가야금병창과 전통음악 계승발전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된다.

대회 경연종목은 가야금병창과 기악부문이며, 일반부·신인부·학생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일반부는 전국 성인 남녀 누구나, 신인부는 전공자를 제외한 전국 성인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학생부는 초, 중,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각 부문별 공통사항은 타 대회 국회의장상 수상자와 문화재 예능보유자는 참가할 수 없다.

참가신청 10월 1일까지 미술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회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참가자는 직접 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심사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수상자 선정은 일반부 종합대상은 일반부 대상자 중 종합결선으로 결정되며, 상금 200만원과 함께 국회의장이 수여된다. 일반부 대상은 상금 150만원과 문화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전북도와 전주시, 미술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예문화예술진흥회 미술이 주관하고 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오는 10월 2일 전주직지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은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9월 27일>

▷쥐띠
4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긍정적으로 진행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다. 베풀었던 선행이 덕.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방심은 금물!
84년생: 상황을 살펴보고 행동하라. 센스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

▷소띠
49년생: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오히려 틀어지니 주의하라.
61년생: 그동안 했던 언행에 대해 구설이 따르는 운.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호랑이띠
50년생: 협동해야 가능하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슬은 복병으로 인해 신경을 잃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나 나중에 편안해진다.
63년생: 베푸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
64년생: 문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는 필수.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라.
66년생: 물리오는 화기를 가리양하라.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양띠
55년생: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뿌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92년생: 소화가 계통이 막히는 운.

▷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앞으로 나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한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생각 없이 한 언행으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하라.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다.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라.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